군민의 삶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 건설 박차

51개 공모·평가사업 선정 1천848억 사업비 확보
'담양식 그린뉴딜정책' 추진 포스트 코로나 선도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은 담양군은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를 목표로 후반기엔 '담양식 그린뉴딜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담양군 제공〉

민선 7기 전반기 성과 분석

민선 7기 담양군은 전반기 2년 동안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을 군정 목표로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군민 삶의 질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2일 "'군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도시 담양'이라는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출발한 민선 7기 담양군정이 반환점을 맞았다"며 2년 간의 소회를 밝혔다.

최 군수는 주요 성과로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준공, 비대면 유통기반 강화를 위한 '담양몰' 구축 ▲'첨단문화복합단지' 준공 ▲쓰담길·해동문화예술촌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 활력 도모 ▲24개 업체 823억원, 고용인원 368명 투자협약 체결 ▲51개 공모사업 선정 1천848억원 확보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지정과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통한 인문학정원도시 기반 조성 ▲담양 대나무밭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등을 꼽았다.

지역 핵심산업인 농업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차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를 준공했으며, 농민이 직접 설계하는 정책 추진을 위한 농업회의소 설립 또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와 함께 '문화를 테마로 한 도시재생'이라는 담양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어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이 기대되고 있다.

해동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 이후 광주·전남 예술인들 활동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통시장 주변 거리를 문화예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담주 다미담 예술구 조성사업 중 예주 구간인 쓰담길도 준공을 앞두고 있어 향후 청년 상인과 문화예술가 입주를 통해 문화생태도시 담양의 새로운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담빛담루 조성 사업 등이 본격화돼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로 대표되는 기존 관광지와 연계성 강화를 통해 담양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울러 향후 3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담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담양읍 원도심이 새로운 활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인구 유출의 주요인이었던 교육분야에서도 전남도 최초 공립형 대안학교인 '송강고등학교'가 2021년 개교를 위해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어 '대안교육 도시 담양'을 만들기 위한 큰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담양 대나무밭이 대나무 품목 세계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돼 담양 대나무 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제적인 대나무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래 담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고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전남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사전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담양읍 권역, 수북·대전권역, 고서·창평권역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군수는 "남은 임기는 대규모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군정을 펼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정책 강화와 함께 변화될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담양식 그린뉴딜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황룡우시장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장성군이 황룡우시장에 도입한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이 축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68년 설립된 황룡우시장(황룡면 월평리 168-8)은 장성의 대표적인 한우 경매시장이다. 4천400여㎡에 5동의 계류장과 경매시설, 휴게소,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장성군은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군은 지난 5월 설치를 완료했다.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이후 가격이 적힌 종이가 오가며 경매가 이뤄지던 풍경은 과거가 됐다.

경매에 참여한 개인이나 사업자는 응찰기에 응찰가를 입력한다. 경매가 낙찰되면 낙찰자의 이름과 금액, 출하 농가가 경매시설 전광판에 표기된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 내일부터 시행…토·공휴일 운영

장성군은 2일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를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성호를 찾은 관광객이 좌측 수변길인 '출렁길' 입구에 설치된 상품권 교환소에 들러 3천원을 내면 동일 금액의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지역 내 1천43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입장료 징수 방식이 아니어서 관광객 부담이 적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장성호 수변길 상품권 교환제는 토요일·공휴일에만 운영되며 장성군민, 국가유공자 등은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관내 초·중·고 학생자치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연수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초·중·고 학생자치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생자치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초빙,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생자치 방향과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법 등을 소통과 나눔의 방식을 통해 공유하며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자치활동을 이끌며 어려웠던 점과 보람을 느낀 점,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 각자 생각을 포스트잇에 적고 활동판에 붙여가며 의견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영광=김동규 기자

불갑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 착공

영광군, 68억 투입 내년 준공 50세대 입주

영광군은 2일 "도시민 인구 유입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모악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최근 착공했다"고 밝혔다.

군은 불갑면 모악리 산45-2번지 일원에 사업비 68억원을 투입, 5만6천268㎡ 부지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주거용지, 마을회관, 공원 등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50세대 분양이 완료되고 2019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그동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을 완료하고 착공해 2021년 6월 완공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광주시와 가깝고 인근에 불갑사 관광지, 불갑테마공원 등이 있으며 영광-광주간 국도 22호선과 국도 23호선이 인접해 교통 접근성도 뛰어나 도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매력적인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모악지구 신규마을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경관이 주변과 어우러져 도시민들에게 최적의 전원주택지"라며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준공 코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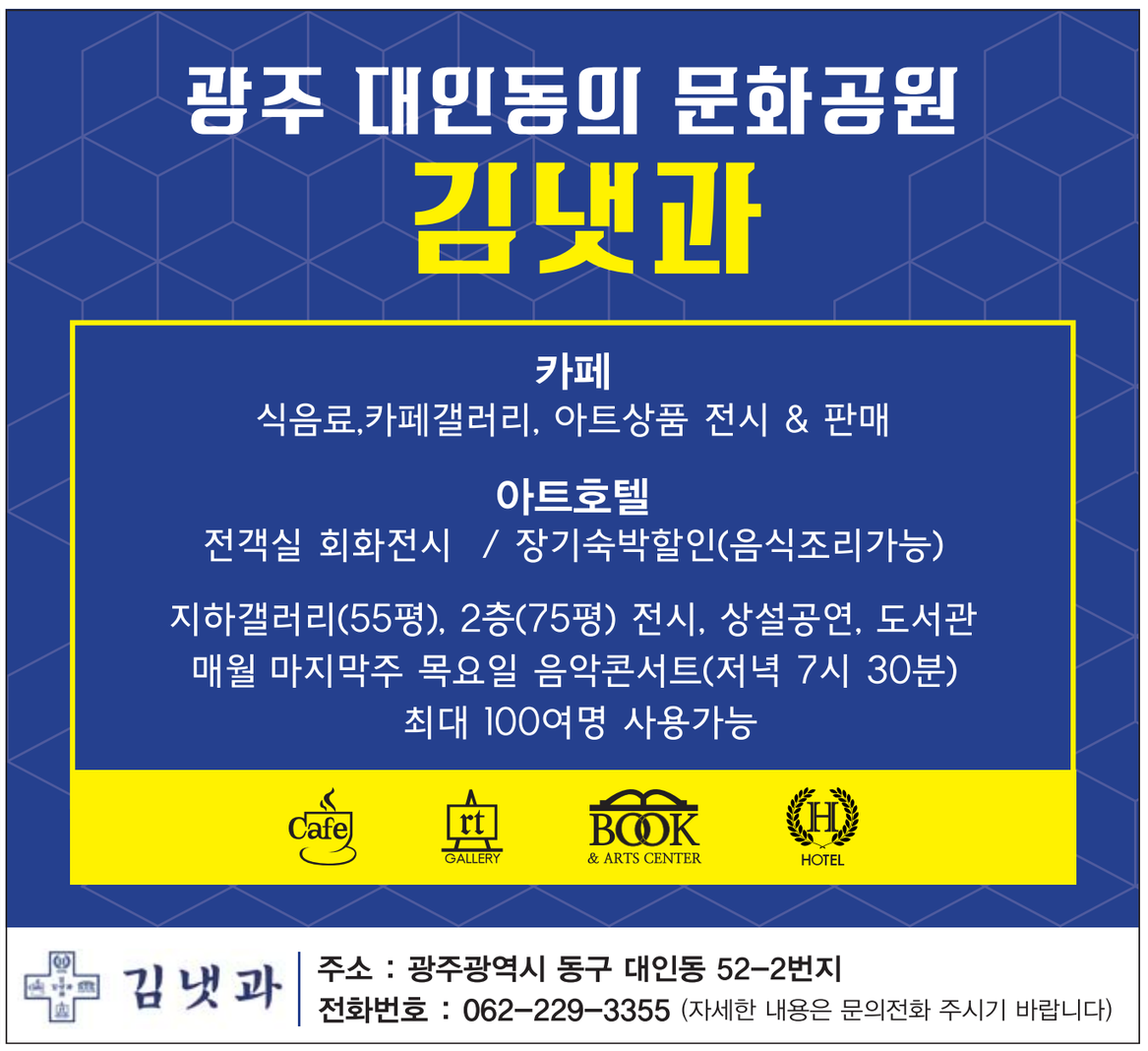
전국 최대 전원주택단지 분양률 99%…올해 말 입주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인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사진)가 준공을 코앞에 두고 있다.

2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말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680세대를 포함해 38만6천평, 1천400여세대 규모의 첨단문화복합단지는 2011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5년에 걸친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착공했다.

사업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부분 준공을 추진, 1단계 구간 단독주택용지 355세대는 준공이 완료됐으며 50여 세대가 건축 허가 후 활발히 공사 중이다.

사업지 동측 2단계 구간은 주요 공사가 완료됐으며 입주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다. 이달 말까지 준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병석 담양군 투자유치과장은 "첨단문화복합단지는 현재 99%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2022년 개원 예정인 페이스튼 국제학원 등 교육시설과 함께 병원 및 다양한 복합 상가 시설들이 들어오면 담양군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담양군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담양군은 지난 1일 광주·전남에서 추가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최형식 군수 주재로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 군수는 지역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와 방문자 관리 및 발열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민간시설,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행사 자제를 당부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담양군 제공〉